

느낌 (Feel)이 있는 관광

안동 문화 축제 FEEL

41 Spring 2018 tourandong.com 안동 유일의 관광잡지



VOL.
41

2018. Spring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P.04-07

계절과 함께하는 안동여행
봄꽃축제



P. 08-13

걷기 좋은 안동여행
선비순례길



P.14-17

찾기 좋은 안동여행
백운정유원지 벚꽃, 용상동 매화동산



P.18-23

의미 있는 안동여행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P.24-27

향기로운 안동여행
땡큐커피, 뉴욕엔커피



P.28-31

색다른 안동여행
안동시티투어, 꽃여행



P.32-35

안동의 문화행사
봄 여행 소식

발행인 권영세·이경원 발행처 안동축제관광재단
편집책임 김은정 편집위원 박원호, 권재환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39
대표전화 054-856-3013 팩스 054-852-9230 이메일 vkehdi@hanmail.net
홈페이지 www.tourandong.com www.maskdance.com
발행일 2018년 3월(통권 제41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 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 장중규

©안동필 / 본지에 실린 어떤 내용도 안동축제관광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동의 봄여행

안동의 봄은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노란 점을 꼭꼭 찍어 놓은 듯 작고 예쁜 꽃을 피우는 산수유가 도산서원으로 가는 35번 국도 주변을 수놓고 퇴계 선생이 그토록 사랑했던 매화는 수줍은 듯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봄꽃 가운데 으뜸인 벚꽃도 낙동강변과 안동댐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봄여행은 뭐니뭐니해도 꽃여행입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봄 여행, 그 화려함 속으로 떠나봅니다.

매화를 사랑한 퇴계 선생을 찾아 떠나는 도산서원 여행

안동 하면 누구나 퇴계 이황 선생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청빈한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학자가 되기보다 늘 제자들의 편에 섰던 선생님의 모습으로 퇴계는 늘 우리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이러한 퇴계 선생이 평생을 친구 삼아 사랑했던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오죽하면 생을 마감하며 남긴 말이 “저 매화나무에 물 주어라...”였을까요. 퇴계 선생은 자연에서 삶의 이치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은 거짓 말하지도 속이지도 않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법칙이 없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퇴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매화꽃 만발한 도산서원을 조용히 걸어보는 느낌 그렇게 시작하는 봄이라면 욕심 없는 세상 되기를 바라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매화꽃 만발한 도산서원을 조용히 걸어보는

느낌 그렇게 시작하는 봄이라면 욕심 없는

세상 되기를 바라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만화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 안동의 벚꽃여행

봄 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일년 중 봄에만 잠시 다녀가서 우리를 더 아쉽게 만드는 벚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동에는 낙동강과 어우러진 벚꽃길이 있어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을 걸어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즐겨보던 만화 속 주인공들은 늘 아름다운 꽃길을 거닐곤 했는데 빨강머리 앤, 피터 팬, 캔디 등 우리의 동심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만화 속 주인공들이 걸었던 그 아름다운 꽃길을 만나는 즐거움을 안동에서 만끽해봅시다.



낙동강변의 벚꽃길은 안동댐에서부터 안동 태화소공원까지의 2km 구간입니다. 안동댐에 둘러 안동민속박물관과 야외박물관을 둘러 본 후 낙동강변을 걷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10월이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리는 낙동강변 축제장에는 주말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하얀 눈꽃 맞으며 달리는 기분 생 각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입니다.



낙동강과 어우러진 벚꽃길이 있어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을 걸어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봄의 산과 봄의 강의 모두 내 품 속에, 병산서원 여행

산업화가 비껴 간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경치가 워낙 좋은 안동,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워낙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정자 혹은 누각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정자 없는 곳 없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곳 중에 안동사람들도 손꼽는 자연의 선물이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하회마을에서 2km 정도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환하게 펼쳐지는 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품에 안듯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영화 취화선, 드라마 국희 등 각종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병산서원은 전국 서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누각을 자랑합니다. 만대루에서 맞이하는 자연은 사시사철이 모두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봄을 맞이하는 느낌은 주변의 새싹들과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극에 이릅니다. 흐르는 강물과 그 강물에 비친 병산(屏山) 그리고 만대루 더할 것도 덜한 것도 없는 병산이 준 선물 그대로가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강물에 비친 병산(屏山) //

그리고 만대루 더할 것도 덜한 것도 없는 //

병산이 준 선물 //////////////////////////////////////

한적한 사찰, 진달래 오솔길 여행

사찰은 어디나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유억불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사찰이 산지에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부처님을 모시면서 사찰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 있어 더욱 유명한 봉정사가 있습니다. 부석사에서 의상대사가 날린 종이봉황이 앉은 자리에 지은 사찰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봉정사에서 극락전, 대웅전을 관람한 후 영산암으로 올라가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한 영산암 왼쪽으로는 개목사로 가는 오솔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솔길입니다. 그렇게 혼한 아스팔트길도 아니고, 지나치게 넓어서 낯설지도 않은 좁은 길을 따라가면 진달래 꽃길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안동의 눈 먼 이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開目寺'가 있습니다. ㅿ

오솔길을 따라가면 진달래 꽃길이 펼쳐진다

수많은 안동의 눈 먼 이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開目寺'가 있다.



Spring

글 조용 | 안동시청 유교신도시진흥과 3대문화권개발팀

봄날에 떠나는 안동 선비순례길 탐방



안동댐 건설이후 40여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안동호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수려한 경관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보여 주지 않았다.



도산면 동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 3대문화권사업중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은 도산권역의 문화유적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세계유교박물관과 컨벤션센터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탐방로는
지난해 11. 18일 개통식을 가지고
이 길을 안동 선비순례길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 길은 안동호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며 성인(聖人)을 본
받아 군자(君子)가 되고자 노력했던 선비들이 유유자적 거닐던 길과 흡
사하다고 하여 선비순례길이라 하였고 총 길이는 91km로 9개 코스로
되어 있으며, 각 코스마다 성현들의 발자취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함께
하고 있어 탐방에 앞서 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자 한다.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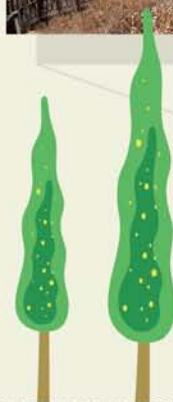
1

고고한 선비정신을 지키며 살았던 군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선성현길**

1코스는 도산구곡 중 첫번째 물굽이인 운암곡 주변을 둘러보는 길이다. 흔히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 선성현길에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지키며 살았던 군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마을에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하여 군자리라는 이름을 얻은 외내마을부터 선비들이 호연지기로 인의를 기르던 예안향교가 있으며, 특히 코스 안에는 안동호 수면 위에 길이 1km, 폭 2.75m 규모로 수상 데크를 설치한 선성수상길도 있다. 수상데크는 수위 변화에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부교(浮橋)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수상길 중간에는 포토존과 쉼터가 함께 조성돼 있어 안동호 절경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이다.

물위로 늘어진 수상길을 지나 월천서당까지 가는 길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안동호의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COURSE

2

퇴계선생의 숨결이 깃든 **도산서원길**

2코스는 월천서당에서 도산서원을 지나 퇴계종택까지의 11km 구간으로 시점인 월천서당은 월천 조목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당이다. 조목은 퇴계 이황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이황을 가까이 모시면서 학문 연구에만 주력하였다. 도산서원 길은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사제의 길로 월천서당에서 안동호의 수변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비의 발자취를 느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퇴계 선생이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원을 지나 퇴계의 후손들이 청빈한 선비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온 퇴계종택에서 종손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 퇴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COURSE

3

'광야' '청포도'를 노래한 이육사의 고향 원촌마을을 지나는 청포도길

3코스는 퇴계종택에서 이육사가 태어난 원촌마을을 지나서 낙동강 상류구간을 만나는 7km의 구간이다

이 길을 걷다보면 청포도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육사의 시상길을 따라 윗판대에 올라가면 '광야에서' 시의 배경이 여기가 아닐까 느낄 수 있다. 원촌마을은 남향터에 마을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름진 들판과 그 너머로 느리지도 급하지 않은 강물이 흘러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궁벽한 산촌마을이지만 이런 사색의 땅엔 필연적으로 인물이 나기 마련이어서 수물 전에는 명문가옥들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육사 따님인 이육비 여사가 살고 있는 목재고택을 비롯한 네 채만 남아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원촌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 이육사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세워져 있다.



COURSE

4

퇴계가 청량산을 향해 걸던 그림같은 장관의 퇴계예던길

4코스는 단천교에서 건지산 정상을 올라가서 농암종택으로 내려와서 다시 청량산 축융봉을 올라가는 12km의 구간이다. 이 길에 있는 올미재는 그야말로 안동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을 한번이라도 와 본 사람은 고산정과 농암종택과 월명담을 전국 최고의 정자와 종택과 소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퇴계는 달빛 쏟아지는 월명담을 비가 오게 하는 연못으로 여겼다. 월명담을 지나 청량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고산정이 나온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가송리 주민들이 매년 정월대보름 때 동제를 지내는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모신 당이 있다.





COURSE
5

공민왕의 어머니가
이곳으로 피난하여 이름 붙여진
왕모산성길

5코스는 고산정에서 맹개마을, 백운지, 왕모산성을 올라서 원천마을까지 12km의 구간이다. 청량산에서 흘러온 물은 산을 넘지 못해 왕모산성을 휘돌아나가고 산은 물을 침범 못해 내살미와 백운지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강 풍경을 만들어냈다.

바로 가까이에 청량산이 있고 산 위로 눈을 돌리면 육사가 '절정'의 시상을 다듬던 칼선대와 퇴계 선생 시절부터 철쭉 피는 봄날에 열렸던 문학토론장 월란정사가 있는 왕모산성과 마주하며 걸을 수 있다.

COURSE
6

안동 최초의 서원 '역동서원'이 있었던
역동길

6코스는 원천리에서 번남댁이 있는 도산서원 앞 의촌리와 계상고택을 거쳐 부포선착장까지 11km 구간이다

강물은 적벽가를 부를만큼 웅용하게 흘러간다. 강가에는 퇴계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기 위해 도산별과가 치러졌던 시사단이 있고 넓은 들판을 따라 걷다보면 고향의 정취를 물신 느낄수 있다.

고려후기 대표적인 유학자인 우탁선생을 기리기 위해 안동 동 최초 건립된 역동서원이 있었던 곳이 나온다 지금은 안동댐 수몰로 계상고택만이 홀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

부포선착장으로 가다보면 봉화금씨의 성성제 종택과 기름진 들과 더불어 천년세월을 견딘 부라원루가 있으며 그 앞 강변의 술술 '사평송' 또한 마을의 풍취를 더하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COURSE

7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 국학진흥원부터
도산온천으로 이어지는

산림문학길



7코스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지산 정상을 지나 도산온천까지 8km 구간이다. 서부리에는 송곡고택과 선성아문, 호계서원이 있으며 한국국학진흥원은 목판을 수집 보존하고 국역을 통해 안동정신을 외부로 송출하는 총 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길의 35번 국도를 따라 도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산림박물관이 있다. 도산에 당도해서는 노송정 종가를 중심으로 그 우편에는 퇴계가 최초로 지은 수곡암과 온계 이해의 종택과 송재 이우의 신도비가 줄지어 있으며 그 반대편에 도산온천이 있다.



COURSE

8

신라의 국권회복을 그리던
마의태자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

마의태자길

8코스는 도산온천에서 용수사와 용두산을 올라 수운정까지 11km의 구간이다 이곳은 신라가 망하자 태자였던 김일이 고려로의 귀부를 거부하는 세력을 이끌고 끝까지 신라부흥을 일으켰던 흔적이 용두산과 태자산 일대에 지명유래와 전설로 남아 있다. 신라의 남쪽을 뜻하는 신남리와 신라재, 태사사지 귀부 및 이수, 마의태자가 매일 올라가 망국의 신라 땅을 바라보았다는 용두산 중턱의 마의대, 마의태자의 한을 담고 있다는 달래재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며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건지산과 투구봉은 영욕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COURSE
9

퇴계 문하생들이 수운정과
건지산을 오가며 서도를 익혔던
서도길

9코스는 수운정에서 국도 35호선을 따라 가송리까지 8 km 구간이다

퇴계의 문하생들은 수운정과 건지산을 오가며 서도를 익혔는데 일생 문자향을 피우고 글씨를 통해 성리학을 이루는 길에 매진했다고 한다. 도산 서부리의 선성아문은 이숙량의 글씨고 퇴계묘비는 금보의 글씨인데 한 스승 아래 벗이 모두 명필인 예는 고금에도 드문 일이어서 칭송이 자자했다.

서도를 익힌 학문의 길에서 선비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걸을 수 있다.

안동시에서는 선비순례길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길로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과 추가 사업을 계획중에 있다고 한다. 따사로운 봄날에 안동 선비순례길을 걸으며 옛 선비들의 정취와 유유자적 했던 삶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ㅍ





찾기 좋은 안동여행

글, 사진 남시언 |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 파워블로거
블로그 : <http://namsieon.com>

백운정유원지 벚꽃

안동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백운정유원지. 사시 사철 푸른 숲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사계절 모두 예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특히 봄에 가장 화려한 풍경을 보여주는 명소입니다. 깨끗하게 조성된 벚꽃길이 인상적인 장소죠. 봄꽃축제가 열리는 안동 강변 벚꽃 길의 벚꽃보다 살짝 늦게 꽃이 피는 까닭에 봄꽃축제를 마음껏 즐긴 다음 이어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안동을 찾는 여행객들이 가기도 좋으며 안동 특유의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찾는 이 드물어 한적하고 그만큼 화려한 곳. 자가용이 있다면 편하게 갈 수 있고 버스편으로도 갈 수 있는 데요. 11-1번을 이용하면 되며 배차가 많은 편이라 누구나 백운정유원지의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캠핑장으로도 사용했던 곳이지만 요즘에는 캠핑장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승 제26호로 지정돼 있으며 강가와 건너편의 정자, 솔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뽐내는 공간입니다. 백운정유원지와 백운정, 그리고 입구에 있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내앞마을 등을 함께 둘러보는 여행 코스를 계획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는 법

내비게이션 검색 - 백운정유원지

버스

11-1번, 633번 시내 버스 탑승,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앞 하차 후 도보 이동





용상동 매화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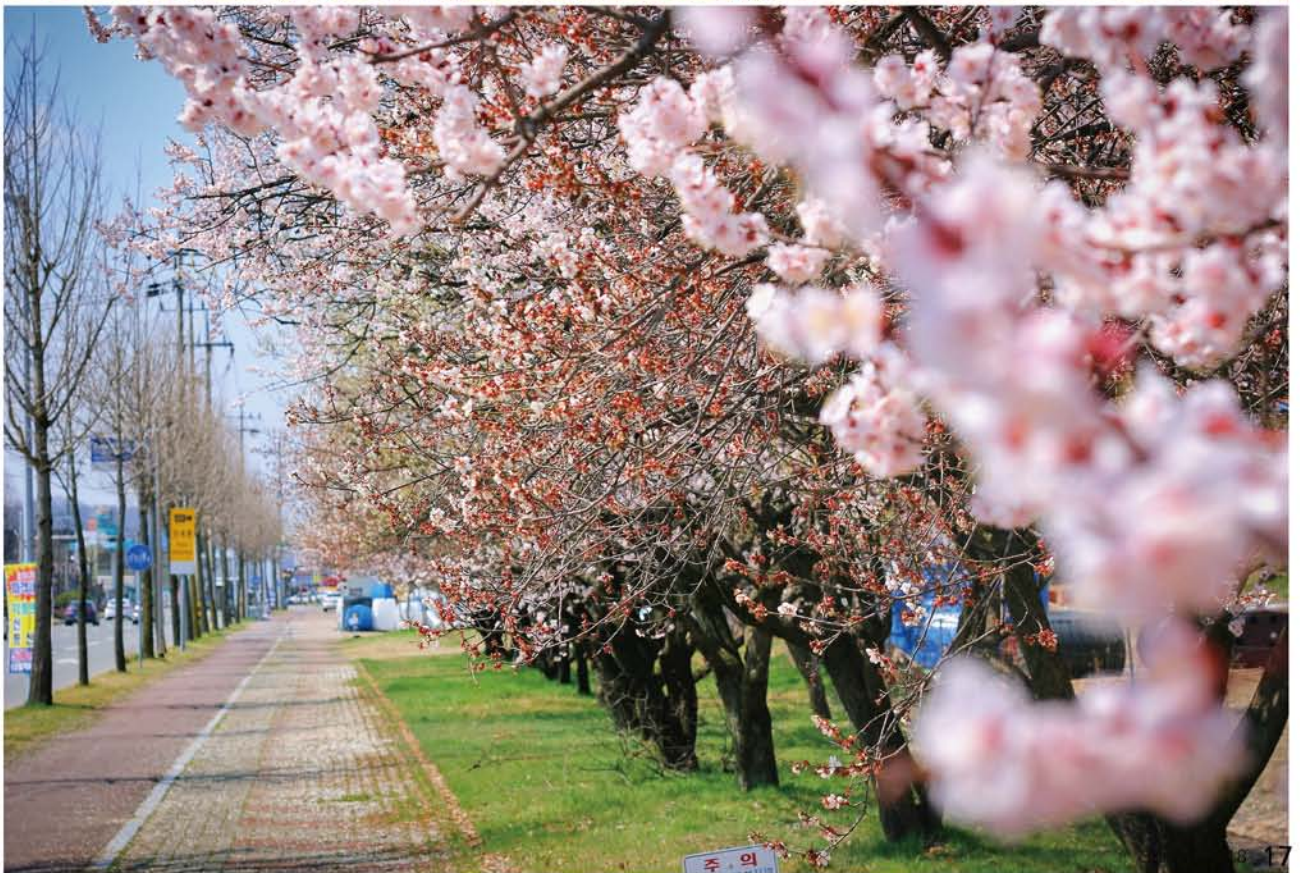
작년에 우연하게 찾아낸 명소 용상동 매화동산입니다. 매화는 벚꽃보다 좀 더 일찍 개화하는데요. 용상 매화동산은 안동 시내권에서 가장 먼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들 중 한 곳입니다. 선어대 근처 숲쟁이길 인근에 소리소문없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월말 ~ 4월초에 꽃이 핍니다. 매화는 벚꽃과 생김새가 흡사해서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향을 맡아보거나 개화날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상동 매화동산은 아직 시민분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요. 숨겨진 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나 자동차 안에서 보는 것과 직접 내려서 보는 것은 천지차이! 이 곳엔 매화나무 열댓그루가 있는데 한적하고 도로변이라서 사진도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봄꽃을 감상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도 장점! 반드시 직접 가셔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ㄸ



가는 법

주소 검색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460-2





나라사랑,

이제
우리 차례
입니다

글 김지훈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교육문화부 차장

나라위해
살다간
안동
독립운동가

1000인

경북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넘어 세계 역사에서도 우뚝합니다. 경북은 1894년 갑오의병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51년 동안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펼친 곳입니다.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계몽운동, 자정순국, 의열투쟁, 3.1독립만세운동, 6.10만세운동, 청년·농민·학생운동, 그리고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에 죽음으로 자신을 단죄한 사람이 있었고,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 광복에 목숨을 바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부끄러움과 책임의식, 그리고 정당성을 향한 희망과 용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독립군가부르기 경북도내 합창대회

“나라사랑 이제 우리차례입니다”라는 깃발 아래 다양한 교육활동과 기념행사를 펼치려고 합니다. 갈등과 충돌의 20세기를 넘어 공존과 상생·평화를 존중하는 미래세대를 기르는 데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풍부한 역사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가치를 전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선도해나가기 위하여 2007년 8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개관하던 무렵부터 교육·연수 및 기념행사를 통해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교훈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훈문화공연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표아래 첫째, ‘세계독립운동의 으뜸, 경상북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정보를 전달하고, 둘째, 공감과 배려의 리더십을 확산하며, 셋째, 사회적 정의감과 책임의식을 드높이고, 넷째, 학교현장과 발맞춘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섯째, 21세기 공존과 상생, 평화를 존중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한다는 5대 교육목표를 수립하여 성실히 교육 및 보훈문화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



교원직무연수

우선 경북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도민과 함께 되새기고 드높이기 위한 보훈선
 양사업의 첫 삽은 개관 한 해 전부터 시작했던
 <3.1절 기념 대형태극기 제작 및 횃불행진>이
 있었습니다. 이어 매년 현충일이면 <나라사랑 그
 리기 대회>를 열었고, <독립군가 부르기 도내
 합창대회>를 개최하여 보훈의 의미를 확산하
 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공무원 연수



대학생 대상 미래로 선비캠프



해외 후손 초청

또한 독립운동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을 길러내기 위한 <독립운동유적해설사 양성과정>과 교사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보훈캠프>, <나라사랑 안동사랑 역사체험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13,000여 명의 연수·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대 재개관을 하면서 우리 기념관의 교육·연수와 보훈문화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해나갈 교육문화부가 신설되었고, 독립운동을 생생한 체험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역사공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북사람들이 펼쳐나간 항일투쟁과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체험캠프



교사동아리 '라운혜움'



신흥무관학교



학생동아리 '교실 밖 역사길 걷기'

우리 기념관은 앞으로도 “나라사랑 이제 우리차례입니다”라는 깃발 아래 다양한 교육활동과 기념행사를 펼치려고 합니다. 갈등과 충돌의 20세기를 넘어 공존과 상생·평화를 존중하는 미래세대를 기르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긍정적 가치를 함께 퍼뜨려 나갈 기성세대들이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열린 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ㄸ



향기로운 안동여행



땡큐커피

도심 외곽, 암산유원지 인근에 위치한 땡큐커피는 분위기가 좋아서 안동 시민들에게 예전부터 핫플레이스로 인정받던 카페입니다.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곳인데요. 건물의 모습은 거칠면서도 클래식한 반면 내부는 알록달록한 조명과 예쁜 테이블을 배치해서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공간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 흔들의자 테이블, 연인끼리 앉아 사랑을 속삭이는 자리 등 위치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땡큐커피의 자랑이죠. 땡큐커피 안의 네온 사인은 땡큐커피를 찾는 이라면 반드시 사진을 찍는 필수 포토존입니다.

딸기 바나나 주스와 그래놀라 딸기 요거트 등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하며 과일을 재료로 한 메뉴가 특히 사랑받는 중입니다.

영업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 암산유원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은 조용한 편이지만, 땡큐커피만큼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맡으려면 조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선인장도 판매하며 시간날 때 선인장을 감상
해보는 것도 땡큐커피에서 시간을 보내는 멋진
방법입니다.

가는 법
네비게이션 검색 - 땡큐커피 또는 암산유원지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암산길 238

전화
054-854-7006






뉴욕앤커피



태화동 유명 빵집인 뉴욕제과 2층에 위치한 뉴욕앤커피입니다.

이 카페는 한적한 동네에 있지만 독특한 메뉴들과 자체개발한 다양한 음식들로 안동 시민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카페인데요. 가장 유명한 메뉴는 조리퐁쉐이크로 조리퐁과 쉐이크의 호홉이 환상적인 음료입니다. 줄여서 '퐁쉐이크'라 부르죠. 조명이 편안하며 분위기가 아늑한 카페입니다. 1층 뉴욕제과에서 빵을 산 다음 2층 카페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일요일은 휴무. 퐁쉐이크 외에도 초코링쉐이크, 레드벨벳라떼와 말차아일랜드, 생딸기라떼와 오렌지몬스터라떼 등 독특하고 달콤한 음료가 많아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뉴욕앤커피의 보드게 임류도 놓치지마세요!

프랜차이즈 카페가 난무하는 시대에 독특함으로 승부하는 동네 카페입니다. 



coffee. 



가는 법
네비게이션 검색 - 뉴욕제과 또는 뉴욕앤커피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661-12

전화
010-4741-6217





색다른 안동여행【安東旅行】
안동시티투어, 꽃여행

왜 ? 안동시티투어에만 1박2일

시티투어 색다른 발상으로 소중한 추억을 ~~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공모전을 통해 경북과 강원도, 충남, 전남 지역 소재 한옥에 머물면서 한과 만들기, 다도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9개 여행 상품 가운데, 한 해 동안 여행사별 모객실적 및 만족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안동시티투어는 '안동먹탐 1박 2일'이란 상품으로, 총 550명 유치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안동시티투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한국적인 맛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고택·한옥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안동시티투어를 소개한다.



안동시티투어 권혁대 대표는 겨울에는 따스한 아랫목, 여름에서 시원한 바람이 있는 마루에서 가족이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평소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에 종부님의 밥상을 받아 '경청'(명태보풀라기)에 대한 밥상머리 대화, 하회마을 집집마다 있는 '감나무'에서 부모님 마음, 부모님 말씀은 세 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5-3=2)는 이야기 등은, 평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의 체험후기를 보면서 행복해 한다고 한다.

이상루





체/험/후/기/

뽀미 - 안녕하세요~ 8월 2일 하회마을투어를 다녀온 모녀팀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쁜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갤러리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날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생각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ㅎㅎ

짧은 휴가기간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든 일정이라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투어 내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여기에 행복한 추억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투어 신청하실 참 잘 했구나~ 라는 뿌듯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게 되네요^^
 정말정말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에 엄마와 함께 맘껏 웃고 떠들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 추억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안동에 대한 공부도 덩으로 하고요~~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박2일 투어코스로 신청할걸.. 이라는 아쉬움이 한가득.. 남
 았았더라는 후문이.. ㅋㅋ 하지만 다음을 기억할 수 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엄마와 함께~ 아니면 다른 가족들도 함께~~
 다시 한 번 꼭~꼭! 가보려고 해요~^^
 물론 그땐 1박2일 코스로~~ ㅎㅎ (고택체험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ㅋㅋ)

마지막으로..
 그 날 함께 행복한 여행에 동행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뽀미언니 언급처럼 지역문화와 함께 하며 추억을 만들고 또한 기록을 남겨주어 인생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특히 고택체험 1박2일은 그냥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직접 느껴보는 계기가 된다.

고즈넉한 고택에서 정적인 느낌에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고택에서 차려주는 종부(일부)님이 차려주시는 아침밥상에서 '명태 보푸라기'로 '경청'을 주제로 잠시 대화하며 가족의 사랑을 느껴본다고 한다. ㄸ

문의 : 010-3507-4859 안동시티투어 권혁대



2018 안동봄꽃축제

- **기간** : 2018년 4월 6일(금) ~ 4월 15일(일)
- **장소** : 안동체육관 ↔ 탈춤공연장(0.6km)
- **문의** : 안동축제관광재단(054-840-6397~8)
- **프로그램**

- **공연** : 청소년오케스트라, 가야금, 현악4중주, 통기타 공연, 난타, 버스킹, 포크 음악회, 봄꽃놀이단 공연 등
- **전시** : 커피 한 잔에 내려 앉은 봄(까페거리, 봄 포토존, 커피 콩 그림 등), 빛터널(조명터널)
- ※ 2018년 안동봄꽃축제의 먹거리 및 상가는 탈춤공원 내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벚꽃 개화 시기에 따라 축제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봄 여행주간

- **기간** : 2018년 4월 28일 ~ 5월 13일

<관광지 및 입장료 할인>

- 안동유교랜드(입장료 2,000원 할인)
- 도산서원(입장료 20% 할인)
- 안동그랜드호텔(주중 30%, 주말 20% 할인)
- 안동게스트하우스 고타야(하회마을 및 월영교 투어 1인 2,000원)
- 링커파티게스트하우스(1일 10명 한정 1인 2,000원)

<행사 및 축제 이벤트>

- 어린이날 원예활동 체험프로그램(안동농업기술센터 5월 5일~6일)



제16회 여성민속한마당

- **일시** : 2018년 4월 28일(토)
- **장소** : 웅부공원 및 문화공원(안동시 서동문로 203 일대)
- **주최 / 주관** : 안동시 / 안동문화원
- **문의** : 안동문화원(054-859-0825) <http://www.adcc.or.kr/>
- **내용**
 - **민속행사** : 지신밟기, 고유제, 내방가사경창 시연, 안동넛다리밟기 시연
 - **공연행사** : 국악, 민요, 가요, 성악, 어린이합창, 색소폰 공연 등
 - **전시 및 체험행사** : 자연염색, 야생화, 한지공예, 어린이화전놀이, 향토음식 체험 등
 - **경연대회** : 경상북도 화전놀이대회, 경상북도 노국공주선발대회, 읍면동 향토음식소씨대회, 읍면동 널뛰기 대회, 청소년 민속놀이대회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 **일시** : 2018년 5월 5일 10:00~17:00
- **장소** : 안동탈춤공원
- **프로그램** : 기념식,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2018 행복안동 평생학습·복지 어울림마당

- **기간** : 2018년 4월 7일(토) ~ 8일(일)
 - **장소** : 안동탈춤공원
 - **문의** : 안동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054-840-5578)
 - **주제** : 배움과 나눔, 꽃으로 피어나다
 - **내용** : 희망 꽃 터널, 라퍼커션 퍼레이드, 동아리 공연, 안동시
 - **프로그램** : 희망꽃터널, 기관 홍보 및 체험부스, 라퍼커션 퍼레이드, 동아리 및 축하공연, 안동시 한 책 읽기 운동, 꽃그림(나를 꽃으로 표현해보자), 곤충, 파충류 생태 체험학교, 에어바운스, 꽃보다 바라봄사진관, 복지 나눔 꽃밭, 밥상머리 복지교육 비빔꽃밥, 나눔까페, 도서나눔, 재미있는 유아체육놀이터, 로봇테니스게임, VR체험버스, 직업체험
- ※ 모든 체험은 쿠폰(1장 500원)으로만 참여 가능, 중고책(2012년 이후 발간책) 기증 시 쿠폰 교환
※ 쿠폰 판매 금액은 전액 안동시장학회에 기탁



안동문화재야행

- **기간** : 2018년 5월 4일 ~ 5일
- **장소** : 태사묘 및 웅부공원 일원
- **문의** : 안동축제관광재단(054-840-6397~8)
- **프로그램** : 고려시대 특별전, 근현대문화유산특별전, 고려시대 거리 모습 재현, 문화시설 야간 개방, 문화재 그림 전시, 공연(안동차전놀이, 놇다리밟기), 종가음식 전시 등



하회별신굿탈놀이상설공연 안내

- **기간** : 2018년 3월 ~ 12월 14:00 ~ 15:00(1시간) 매주 수, 목, 금, 토, 일(주 5회 공연)
- **장소** :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하회마을 내 탈춤공연장)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2-1
- **문의** :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054-854-3664), www.hahoemask.co.kr



기획 사진 전시 '河回'

- **기간** : 2018년 4월 1일 ~ 10월 31일(월요일~일요일) 10:00~17:00
- **장소** :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하회마을내 탈춤공연장)
- **문의** :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www.hahoemask.co.kr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Korea's Spiritual Culture, Fell of the glorious doctrines of Chu-tzŭ and Buddhist Culture.
Home of Korean Learning and Etiquette, Boasting a five-thousand-year-old history.*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춘천방면 중앙고속도로 ▶ 남원주IC ▶ 서안동IC

서울방면 영동고속도로 ▶ 만종JC ▶ 중앙고속도로(남원주IC) ▶ 영주 ▶ 서안동IC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 ▶ 함창IC ▶ 문경(3번국도) ▶ 예천(34번국도) ▶ 안동
 영동고속도로 ▶ 영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IC) ▶ 문경새재IC ▶ 예천(34번국도) ▶ 안동

대구방면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IC ▶ 민속박물관/도산서원
 중앙고속도로 ▶ 서안동IC ▶ 하회마을/봉정사
 35번국도 ▶ 칠곡 ▶ 군위 ▶ 의성 ▶ 안동

부산방면 경부고속도로 ▶ 금호JC ▶ 남안동IC ▶ 민속박물관/도산서원
 경부고속도로 ▶ 금호JC ▶ 서안동IC ▶ 하회마을/봉정사
 경부고속도로 ▶ 영천IC ▶ 35번국도 ▶ 안동

